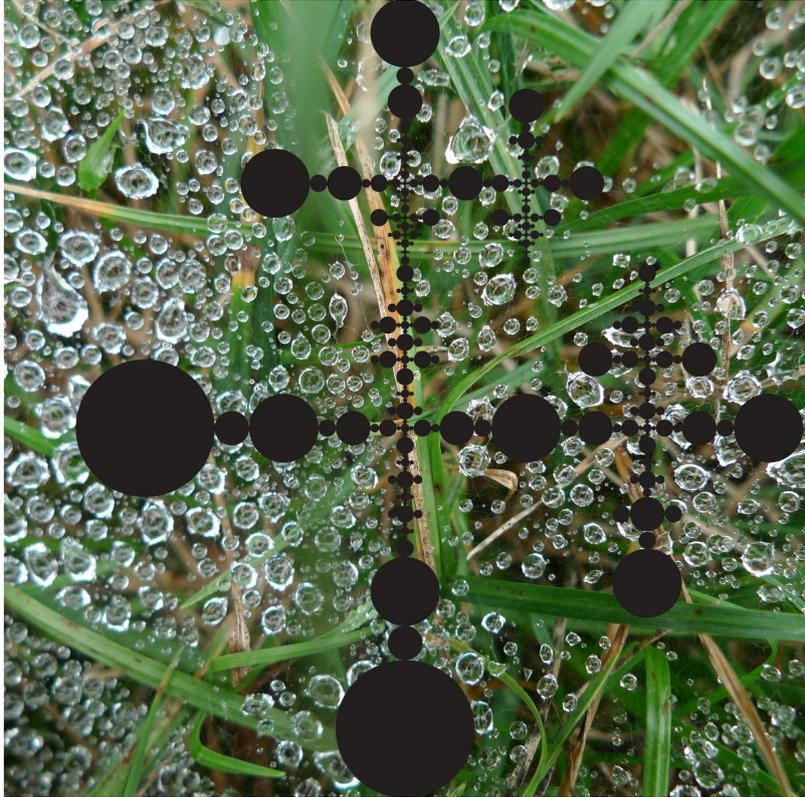


# Gabriel Orozco

해외 ARTIST 가브리엘 오로스코

1962년생 멕시코

2024 / 05 / 17



<DROPS ON GRID> 캔버스에 파인아트 프린트 100x100cm 2010

거리에서 발견하거나 주문 오브제나 재료, 스냅사진 자체가 작업이 되는 가브리엘 오로스코의 예술 세계에는 '우연성'과 '유머'가 공존한다. 오로스코는 국적과 관계 없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곳의 다양한 현상에 자극을 받아 일상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낸다. 그가 보여준 자발적인 상상력이나 조각에 대한 유동적인 접근 방식은 '재현'에 대한 문제나 문화다원주의로부터 현대미술을 자유롭게 했다. 작가는 일상의 오브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아르테포베라, 신체를 개입시키는 행위 예술, 장소특정적 미술, 대지미술 등 다양한 현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모두 품는다. 오히려 매체와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한결같이 즉흥적인 방식을 취하는 태도는 동일하다. <워킹 테이블>에서는 큰 테이블 위에 여행 중 주문 온갖 보잘 것 없는 사물을 늘어놓고, <La DS>는 씨트로엔 자동차를 절단하여 왜곡된 형태로 재조합했다.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해 준 1993년 뉴욕현대미술관 개인전에서는 전시실 유리창에서 보이는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창문에 오렌지를 넣은 컵을 세우도록 지시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기묘한 광경을 발견하게끔 이끄는

<홀런>을 선보이기도 했다. 휘트니비엔날레, 카셀도쿠멘타,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했고, 2009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된 회고전이 바젤 콘스트뮤지움, 파리 퐁피두센터, 런던 테이트모던으로 순회했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고, 2010년 PKM트리니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 이 기사는 2013년 1월호 특집 「What is Contemporary Art?」에 게재되었습니다.